

방황하는 지성

박 상 건

전 한국기자협회 자정운동추진위원장



그날 밤의 논쟁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스승의 날’을 맞아 모처럼 은사님을 찾아간 본디 참뜻은 퇴색되고, 학교 앞 주점에서 무르익어 가는 술판만큼 논쟁은 뜨겁고 거칠어졌다. 평소의 남다른 사제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 찻잔의 작별을 하고 말았다. 은사님마저 여느 지식인의 이중적 논리 전개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이 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 대화 중에 나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호된 비판의 근거는 지역주의에 있었다. 그러나 이내 ‘지역감정’을 건드리면서 ‘감정 싸움’이 되고 말았다. 이 땅에 지역감정을 당해낼 장사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지역주의를 얘기하고 지역감정을 근거로 논쟁을 하면서 당신은 왜, 지역주의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고 하지 못했던 것일까? 한 언론매체가 여론 조사한 교수들의 대선후보 지지 근거는 연고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교수도 지역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거나 이를 근거로 대선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대결이니,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정작 투표행위에서는 별개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일부 지식인들의 연고주의 투표행위를 예로 들어 성급하게 도덕의 잣대로 들이밀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결같이 서구적 이론을 끌어들이며 자신의 논리를 애써 신성화하려는 방어적인 자세가 문제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의 캠프를 드나들며 정치패권주의 논리 개발에 앞장서는 모습을 슬하하게 보아왔다.

최근 밖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은 저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걱정했다. 어떤 교수들은 교육관료들의 권위주의와 탁상행정의 불합리성을 거론했고, 외국 대학이 들어와 큰일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어느 교수는 언론의 상업성과 편파 왜곡을 지적하면서 그런 언론 행태가 가뜩이나 대학의 이미지를 구기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렇다. 재단 비리, 관료 비리, 언론 비리 등은 큰 문제이다. 이는 비리 공화국의 폐단들이다. 그것이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는 데 뜻을 달리할 사

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다. 어디 '70년, '80년대에는 대학 비리가 없고 교육환경이 더 나아서 요즘보다야 교수들이 존경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90년대에는 대학행정과 관료행정이 요지경인 까닭에 대학문화가 실종되고 대학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것일까? 교수들의 무책임주의와 방관주의, 출세지향주의 등은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주의, 다원주의 문체와 뒤섞어진 채로 대학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고 본다. 재단 비리를 질타하던 교수들이 보직 한자리 맡으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만다. 교육관료 탓하던 교수들이 정부의 무슨 무슨 자문위원 자리 하나 차지하면 어느새 체제 홍보맨이 되고 만다. 정작 소속 사학재단 비리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대학 관선이사로 파견돼 왈가왈부를 하는 것이나, 그 이력을 꽤 자랑으로 삼는 모습이 때로 민망하다. 세미나장에서 언론의 과열경쟁을 목소리 높여 비판하던 교수가 한 석간신문이 조간으로 바뀌던 날, 큼지막하게 할애해 준 칼럼 지면에 등장해 온갖 서구 언론의 예를 들어가며 '조간 전환의 의미'를 읊조리는 모양새 역시 정말이지 염치없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친다. 또한 정권이 바뀌자 친정부적 언론사와 언론 산하단체장에 눈독을 들여 정권 실세들에 줄대느라 분주한 해바라기성 언론학자들의 모습도 추해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식인들의 이런 위도가 지속될수록 대학사회는 방향과 공황 상태로 치달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대학은 부실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기업이 빅딜의 대상이 되는 서글픈 세상이지만 대학사회의 구조조정시 경영진과 함께 인적 청산도 불가피할 것이다. 대학을 취업준비 학원으로 방치한 채 지식인의 명함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일에 이제는 중지부를 찍으면 한다. 그런 추호의 오해마저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신성함과 지식인의 도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대학은 '대학'만의 대학이어서는 아니 된다. '대학'과 '사회'를 잇는 신뢰로운 디딤돌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지성이 이 사회의 오염원을 정화하는 청량제로서 더없이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학생들의 붉은 대자보가 그 설익은 눈으로 대학사회와 우리 시대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페스탈로치 교육철학을 역설하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지도적 인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으면 싶다. 그 길이 '믿음직한 교육'의 첫걸음이요, 이 시대 개혁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

박상건/경기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으며, 『대학문화』, 『아태평화포럼』, 『샘이 깊은 물』 등의 편집장과 『경기도민일보』의 사회부 차장을 지냈다. 저서로 『일류공무원 삼류행정』, 『여론조작 40년』 등이 있으며 "서해안시대 폐막", "언론과 카지노 커넥션" 등의 글을 발표했다.